



초록 세상 곡우(穀雨)인 20일 보성군 회천면 봉재대원에서 녹차잎 수확이 한창이다. 녹차는 이른 봄 어린 잎을 채취해 만든 '우전', 곡우를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채취한 잎으로 만든 '곡우',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잎으로 만든 '세작' 등으로 나뉜다.

# 설레는 황금연휴 한숨 쉬는 사람들

**■ 직장에선**  
석가탄신일 등 최장 11일  
중企 직원들에겐 '그림의 떡'  
선거담당 공무원은 일 늘어

'황금연휴'라고 불리는 5월 징검다리 연휴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직장인이라면 5월 2일과 4일 휴가를 낼 경우 전주 토요일(4월29일)부터 대통령 선거일(5월 9일)까지 무려 11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연휴와 무관하게 일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원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교대 근무 형태에 따라 '주당 40여 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 휴

일이 많다고 더 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지면서 선거 관련 종사자들은 황금연휴에 오히려 바빠질 전망이다.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연휴를 반납할 수밖에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선거담당 공무원들도 황금연휴를 즐기지 못하게 됐다. 사전투표날인 5월 4일과 5일, 광주 95곳 그리고 전남 297곳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한 곳 당 공무원 5명 가량이 투입된다. 하룻동안 사전투표소에 투입되는 인원만 광주 500명, 전남 1500명 가량에 이른다. 여기에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선거관, 지자체, 경찰 등 광주·전남에서만 공무원 수천 명이 근무해야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빨간 날이나 대체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게 아니다. 이번 연휴처럼 선거가 겹치는 경우엔 오히려 비번이나 휴무인 경찰관들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학교에선**  
10개 학교 연휴직후 중간고사  
학부모들 가족여행 등 포기  
학교에 항의 서한 보내기도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주부 김모(여·48)씨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중학생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황금연휴인 대선 직후(5월 10~12일)에 중간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가 공부하는데 부모가 마음 편히 연휴를 즐길 수 있겠느냐?"며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연휴에 가족과 함께 여행 갈 계획이었지만 중학생인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연휴기간에는 문을 열지않아 집 근처에 독서실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중"이라며 "연휴 전에 시험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학사일정을 정한 학교의 선택이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대부분의 중·고교가 4월 말에서 5월 초 연휴에 앞서 중간고사를 끝내 휴일을 즐길 수 있지만 5월 8일이나 10일 시험이 예정된 학교 10여 곳의 학생들은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다. 광주시 광산구 J중학교 2학년 정모군은 "인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험을 본다"며 "그 친구들은 벌써 연휴기간 동안 놀 생각에 들떠있어 정말 부럽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J중학교 관계자는 "연휴 직후 시험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최근 편지를 보내왔었다"며 "학교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학사일정이 빽빽해 황금연휴 직후에 시험을 보는 것이 학생들의 비행도 예방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

## 소송 이어 건물 철거...곤혹스러운 흥복학원

개발사, 서진병원 철거 추진...대광·서진여고 학습권 침해 무대백  
대광·서진여고 교직원·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교 앞 통학로 소송<광주일보 2017년 4월 18일>에 이어 학교 앞에 수 십년간 흥복로 방치되고 있는 옛 서진병원 건물을 대광·임대료 지급 소송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건물 철거 공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학

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서진병원 건물 철거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해당 건축물은 옛 서진병원 건물로, 지난 1982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89년 공사가 중단돼 20년 넘게 유령 건물이 되고 있다. 그랜드종합개발은 "지난해 11월 2일 공매로 낙찰받은 부지에 방치되고 있는 서진병원 건물을 철거해야 구상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가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철거에 들어간 뒤 향후 철거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당 건물이 대광·서진여고 바로 앞에 위치한다. 부지 길이만 100m에 가까운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학생을 피해가 없도록 소음·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3, 달뜨기 02:32, 해질 19:10, 달지기 13:31

**마스크 준비하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 많음	11/22	보성	구름 많음	10/20
목포	구름 많음	10/19	순천	구름 많음	12/21
여수	구름 많음	13/20	영광	구름 많음	7/19
나주	구름 많음	8/21	진도	구름 많음	12/17
완도	구름 많음	12/20	전주	구름 많음	8/21
구례	구름 많음	8/21	군산	구름 많음	8/19
강진	구름 많음	9/21	남원	구름 많음	8/21
해남	구름 많음	9/20	홍산도	구름 많음	9/15
장성	구름 많음	7/21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면바다(동)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낮음
- 피부질환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8/18	8/22	9/22	10/20	13/20	9/22	10/22

## 담비·샬·수달...지리산서 잇단 포착

특별보호구역 지정 효과  
지리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과 담비, 샬, 하늘다람쥐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지리산 천은저수지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I 급인 수달과 II 급인 담비, 샬, 하늘다람쥐 등의 활동을 야생생물보호단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은저수지 일대는 2011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돼 탐방객의 출입이 통제됐다. 공단 측은 특별보호구역 지정 이후 생

태계 건강성이 회복되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등 서식처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호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구역을 통제하고 있다"며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

## 광덕고 교정 학생들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

광주 광덕고 교정에도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 세워졌다. 광덕고는 지난 19일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소녀상은 '전국 고등학교 100개 작은 소녀상 세우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다. 앞서 광주 상무고와 성덕고에도 소녀상이 세워졌다. 광덕고 학생회는 지난 겨울 방학 교내 캠페인 후 모금 활동을 벌였다. 학생들



은 또 '소녀의 꿈'이라는 앱을 개발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교육 내용과 쿼즈를 담은 '소녀의 꿈'이라는 앱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